

무공스님

가평 청오사 주지

가까이서 뵈 큰스님

“마음 밝아야 눈 귀 정신 밝게 돼”



오도승으로 보는 한국禪

무산스님

편양선사 '寤寐心'

선사의 법명은 언기(彦機), 법호는 편양(彦羊), 속성은 장(張) 씨다. 조선 선조 14년(1581)에 죽주현(竹州縣:경기도 안성군 죽산)에서 태어났다.

임진왜란이 일어난 해인 12세에 금강산 유점사에 주석하고 계신 현빈인영(玄賓印英) 선사에게 삭발 영의하였다.

왜구가 강산을 짓밟던 8년 동안은 스승의 문하에서 경·율·론 삼장(三藏)을 공부하였다. 왜란이 가라앉자 사교 입선하여 전국 제방으로 다니면서 여러 선로(禪老)들을 찾았다. 19세 때 타파칠통(打破漆桶: 무한겁 이전부터 무명 번뇌가 쌓여 감춰진 불성을 깨닫는 것)하고 보임(保任)하면서 평안도 어느 목장에서 '양치기 생활'을 하였다. 여기에서 선사는 편양당(彦羊堂)이라는 호를 얻게 되었다. 22세 때 묘향산에 계신 청허(淸虛) 선사에게 입실하고 3년을 수좌(修坐) 시봉하여 스승의 불법을 체득하

雲走天無動(운주천무동) 舟行岸不移(주행안불이) 本是無一物(본시무일물) 何處起歡悲(하처기환비)

구름이 달리지 하늘은 움직이지 않는 법, 배가 갈판 언덕은 가지 않는 것, 본래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에 기쁨 슬픔 있으리요.

선사는 남자를 제정함에 있어 교학을 이수해야 할 학인에게는 삼장(三藏)을 강설하고, 참선 대중에게는 선가 특유의 방법으로 조사선지(祖師禪旨)를 설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심검선(審劍)이었다. 선사는 선을 교보다 위에 두었으며 선을 경절문(經截門: 조사의 공안상에 때때로 들어 깨쳐서 의심 일익을 성성히 하되, 천천히도 빠르지도 않고 혼침과 산란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잊지 않기를 갖

본래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에 기쁨 슬픔 있으리요

여 그 법계를 이어받았다. 선사는 평양성에서 보임하면서 모란봉에 음악소굴을 짓고 살았다. 선사는 문전걸식하면서 수도수백명의 절인들을 한곳에 모아 보살폈다. 이러한 생활에서도 시공을 초월하여 수행을 놓치지 아니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비가 내리는데 비에 젖어 물든 낙엽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확실히 하였다.

난애가 어머니 생각하듯 하면 마침내 묘를 발한다는 것에 두었다.

선사는 여기서 간화선의 원문(圓頓門)을 주장, 그 깨치는 데에 있어 원돈문 수행은 일명심성이 본래 스스로 청정하여 원래 번뇌가 없음을 반조함이나 자기 심성을 반조하는 수행을 설파하고 있다. 본별심이 일어나기 이전을 향하여 그 본별심이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궁구해 가되, 일어난 곳을 못 찾아 마음 속이 답답할 것이지만 바로 그 경지가 깨침으로 가는 좋은 소식인 만큼 방사하지 말고 계속 추구해 나가라고 가르쳤다.

청허 선사의 문하에는 81인의 오도제자(悟道弟子)가 있었고 이종에는 한산종의 조실이 된 분만도 50여명이나 되었다. 그러나 3백여 년이 지난 오늘날 선사의 문손만이 이어져 현재 승려 가운데 95% 이상이 선사의 문손이다. 사명, 소요, 정관 등 50여 문파는 대가 끊긴지 오래다. 그것을 보아 선사의 가르침이 얼마나 뛰어난가를 알 수 있다. 인조 22년(1644)에 묘향산 내원사에서 세수 64세 법랍53세로 좌화(坐化)하였다.

오매심(寤寐心)

不學宜王教(불학선왕교) 寧聞桂吏玄(영문계이현) 早入西山堂(조입서산당) 唯傳六祖禪(유전육조선)

공맹(孔孟)의 가르침을 배운 일 없으니, 어찌 노장(老莊)의 학설을 들었으랴. 일찍이 서산의 집으로 들어가, 오로지 육조의 선(禪)만을 참구했네.

금강산 백화암(白華庵)에서는 '오심(悟心)'을 읊었다

오심(悟心)

경주 해회선원 회주

10월 14일 경기 가평의 모 사단 군법당 인 호국 연호사.

부대 밖 경치 좋은 야산에 자리한 이 군법당은 넓은 부지에 아기자기한 성물들이 조성되어 있지만, 상대적으로 법당은 아담해 보였다. 모처럼 유일을 맞은 장병들이 법당 밖에서 잡담을 나누다 큰스님이 오신다는 말에 서둘러 군화를 벗는다. 법당안에는 100여명의 장병들과 10여명의 민간신도들이 법회를 봉행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윽고 오늘의 초청법사인 무공 스님이 자비스런 미소를 띠고 법당에 들어오셨다.

무공스님은 법문에 앞서 장병들이 입장에 들 것을 지시했다.

“죽비 한번 칠 때 몸이 삼매에 들고, 죽비 두 번에 마음이 삼매에 들며, 죽비 세 번에 입체만물이 삼매에 듭니다. 불자들은 지금 좌선에 든 '이게 뭐꼬' 하는 의문을 내어보세요.”

한 장병이 입장에 들지 않고 몸을 움직이자, 스님이 버럭같은 호통을 친다.

“저 법우는 왜 두리번 거리고 있어! 마음이 밖으로 달아나면 망상이 일어나 안 돼요!”

진리와 하나되는 공부

벽력같은 할에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다. 10여분의 시간이 흐른 후 죽비 소리가 들리자 계승과 함께 스님의 법문이 시작됐다.

“약인욕리지 삼세일체불(若人欲了知三世一切佛인체 응관법계성 일체유심조應觀法界性 一切唯心造)나라. 나마아미타불.”

무공스님은 절에서 도량서 칠 때 부르는 종성계로 법문을 여셨다.

“대방광불화엄경은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서 깨달은 인간 마음 속의 주체가 되는 소식을 전하고 있어요. 이 계승은 과거, 현재, 미래세의 부처님을 알려거든 응당 마음이 모든 것을 지어 만드는 법계를 관조하라는 뜻입니다.”

이날 '무공 큰스님 초청법회'의 법문 주제는 지혜와 자비로 평화를 이룩하자는 내용이 주였다. 요즘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미국의 테러사태와 아프간에 대한 보복전쟁이 법문의 배경이 된 듯 스님은 특히 “불교는 마음의 평화 즉, 열반을 얻는 것이요, 마음이 밝아야 눈, 귀, 몸, 정신도 밝게 됩니다”라고 강조하셨다. “불

교가 일고자 하는 지혜는 '반야(般若)'라고 하지요. 반야의 어원은 씨뿌려 경작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즉 마음 바탕을 갈고 뒤야 지혜의 씨앗을 뿌리고 자비의 감로를 얻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법문(心地法門)이라고 하는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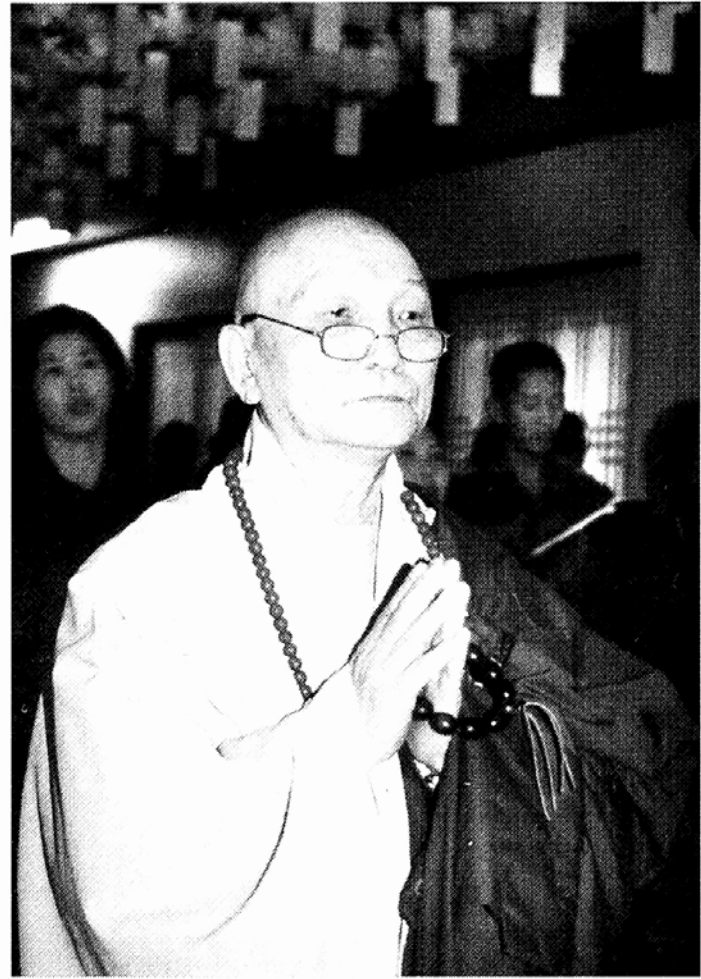
스님은 하나하나 장병들을 둘러보며 이같이 자상하게 설명하며 '반야바라밀'을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와 대비시키며 풀이해 주었다. “지혜에 대한 사랑(愛智)이 서양철학이라면 불교는 '바른 깨달음'(正覺)을 강조하고 있어요. 서양철학이 단순히 진리를 아는 것이 목적이라면 불교는 진리와 하나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눈, 귀, 코, 혀, 몸, 의식을 통해 순간순간 다가오는 사물을 바로 그 때 분명히 직관해 바로 보고 바로 생각하고 바른 말하고 바른 행동을 하고 바른 생활과 노력을 하도록 평소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고 말했다. 마음과 사물이 일체가 될 때, 내 마음과 네 마음이 하나가 될 때 지혜가 생기므로 밖으로 깨달음을 구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때문에 도를 구하다 땅에 앉어진 사람은 '하늘'이 아

왜 두리번 거리는가 마음이 밖으로 달아나면 망상 일어나 안돼요

닌, '마음'에 의지해서 일어서야 한다. 이때 또다시 터져나온 스님의 일갈(一喝).

“꾸벅꾸벅 졸고 있는 법우, 고개 들어! 꿩새끼처럼 졸거냐? 스님 눈 뚫어지도록 쳐다봐, 안그러면 몽둥이로 30방이야.” 추상같은 질타에 모든 청중들이 허리를 곧추 세운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목숨까지도 바치겠다는 절박한 구도심으로 수행하는 이가 오늘날 있습니까?” 스님은 선종의 2조 혜가스님이 팔을 질러 달마스님으로부터 법을 구한 것(斷臂求法)과 부처님께서 나철에게 ‘제행무상 시생멸법(諸行無常 是生滅法)’이란 법문을 얻기 위해 낭떠러지에 몸을 던진 일화를 들려 서원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간절한 구도심을 얻기 위해서는 세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30여년 동안 군포교에 앞장서온 무공스님. 14일 군법당 호국연호사에서 스님은 지혜와 자비로 평화를 이룩하자고 호소했다.

말했다.

첫째는 계정해 3화를 공부해 물러서지 않겠다는 견고한 신심. 둘째는 제의막작(諸惡莫作) 중선봉행(衆善奉行) 자정기의(自淨其意) 하겠다는 원력. 셋째는 국가와 사회를 살리는 지혜와 자비의 힘이다. 불자들의 원은 부처가 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번뇌가 없는 행복한 마음으로 세계평화에 헌신해야 한다는 게 스님의 지론이다.

스님은 세계가 소용돌이칠 때는 우리 민족도 예외가 될 수 없기에 마음을 열고 세계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우선 내 발밑부터 비추어 보는(照顧脚下) 자기 반성과 화합, 격려, 용기를 당부했다. 법회가 끝난 후 무공스님은 장병들과 함께 점

심공양을 한 후 호국연호사 법당 증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77년 창건된 호국연호사는 법당이 좁고 낡아 증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100여명 남짓밖에 들어갈 수 없어,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많은 장병들이 법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것을 무공 스님은 늘 가슴아파 하셨다. 하지만 국방부의 군공예산은 턱없이 부족해, 법당 신축 및 증축이 공사비의 3분의1 정도가 시주금 등으로 확보되어야만 불사가 가능하다.

무공스님은 30여년간 군포교 일선에 서왔다. 77세인 지금도 어느 군법당에서건 법문을 요청하면 한번도 거절하지 않고 먼 곳이면 가까운 곳이면 한말씀에 달려가 군

天蔘 토종 오가피의 신비

— 재배자가 직접 만들어 화제 —

舊소련에서는 국가대표선수들에게 오가피를 복용시켜 올림픽 및 각종 국제대회에서 놀라운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용했던 소련산 가시오가피는 그 유효성분이 우리나라 토종오가피의 25%에 불과했습니다. (노벨수상자인 독일 와그너박사의 논문에서...) 왜냐하면 오가피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용내닐수 없는 것이 있다!
수신 토종오가피는 TV건강문화(i-TV 2000년 1월15일) KBS “6시 내고향”, “나의 영농체험”에 출연한 17년간 오가피를 키워온 재배자 성광수씨가 직접 재배한 100% 국내산 토종오가피로 만듭니다. 가오가피나 수입 오가피로 만든 제품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시면 오가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오가피 건강상담 : 02) 447-5300

한·맘·유·학·원

캐나다 미국 중국 조기 유학, 어학연수 전문

현지 유학 경험자와 수재 경력의 현지 유학 상담원의 가장 정확하고 빠른 유학정보와 수속으로 모든 유학업무를 책임지겠습니다.

취급업무
▶ 영어·중국어
▶ 대학생 및 일반, 회사단체의 장·단기 어학연수
▶ 정규유학(한, 석, 박사), 조기유학(중, 고생)
▶ 서류번역·항공 예약대행 유학생보험

수속절차 안내
○ 유학권 선택 (결정이 안되었을 경우 상담 요망)
○ 지역과 비용을 고려하여 학교 결정(수속계약)
○ 학교공시 (홍시료 또는 학비준비) - 출국시기에 맞추어 항공예약 -
○ 입학허가서 취득 (필요시) 비자신청 및 취득
○ 수속절정 및 pick up 관련 결정 (기숙사 또는 홈스테이)
○ (필요시 출국연료) 출국

“동무한 경험과 현지 사무소로부터의 정확한 정보로 상담부터 출국까지 책임지고 도와드립니다.”
※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

한 맘 유 학 원
TEL : (031)388-8426 FAX : (031)388-8427
■ 경기도 안성시 동안구 평촌동 900-1번지 트윈프라자 2층 205호
■ 지하철 : 4호선 평촌역 하차 ■ 위치 : 귀인마을 먹거리 골목입구 조종면 2층
www.hanmamuhak.com
E-mail : hanmamuhak@yahoo.co.kr